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 허용 확대

최근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The People's Bank of China)은 그동안 上海 浦東地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오던 외국계은행에 대한 人民幣 營業을 深圳 經濟特區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인민폐 영업허용 외국계은행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외국계은행에 대한 인민폐 營業을 확대코자 하는 배경은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를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 배양 및 국제금융시장에서의 人民幣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계은행의 인민폐영업 가능 지역 확대

이번에 深圳 經濟特區가 上海 浦東地區에 이어 외국계은행들의 인민폐영업 허용 추가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중국에서 제일 먼저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다른 지역보다 금융시장의 기본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上海 浦東과함께 深圳 經濟特區가 중국의 주요 외자조달창구라는 점에서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대출여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현재 上海에는 중국에 진출한 총 178개의 외국계금융기관(은행, 재무회사, 보험회사 포함) 가운데 51개 외국계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상해시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上海 진출 외국계은행 가운데 인민폐 營業을 허용받은 은행은 미국 Citi Bank 등 모두 9개 은행이며, 조만간 미국 Bank of America, 네델란드의 ABN-AMRO Bank 등 10개의 외국계은행이 추가로 인민폐 營業을 허용받을 전망이다.

Citi Bank,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HSBC),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Tokyo-Mitsubishi, Dai-ichi Kangyo Bank, Sanwa Bank, Industrial Bank of Japan, Bank Indosuez, International Bank of Paris

외국계은행의 인민폐영업 규제내용과 영업현황

그러나 이들 외국계은행이 인민폐 營業을 허용받았더라도 이들이 중국 내에서의 營業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인민폐 營業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외국계은행의 인

민폐 영업은 上海 浦東地區와 深圳 經濟特區에 한정되며, 영업대상도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계은행에 대한 까다로운 인민폐 대출규정이 인민폐 영업확대를 억제하고 있다. 즉, 외국계은행의 인민폐대출은 인민폐 예금액의 82%, 그리고 외화 총부채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요건을 두고 있다. 셋째, 인민폐 대출을 하고 싶어도 중국은 은행간 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Bank Loan을 통한 인민폐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계은행이 중국 내에서의 인민폐 영업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업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6월 말 현재 上海 浦東地區에서 인민폐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총대출과 예금은 각각 603백만 元(약 72.6백만 달러), 763억 元(약 91.9백만 달러)로 상해에 위치한 중국자본계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진출 외국계은행의 총 외화대출과 예금이 전체의 5.5%(273억 달러), 23.7%(481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민폐 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은 상당히 미약한 활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규제요건 완화내용 및 향후전망

중국 인민은행도 이러한 인민폐 영업의 제한 요건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신규 인민폐 영업을 허용받은 외국계은행의 경우 규제내용을 다소 완화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자금 부족시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1억 元 한도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둘째, 중국계은행과 동등한 자격으로 은행간 시장참여가 허용되는 한편, 자유로운 채권 거래가 가능토록 하며, 셋째, 인민폐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중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계은행과 함께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신규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계은행의 경우에는 좀더 활발한 인민폐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9월 3일 上海에서 인민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9개 외국계금융기관들은 中國工商銀行 上海支店과 모두 2.9억 元한에 달하는 인민폐 크레딧 라인 증액에 합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부족한 인민폐를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이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上海와 深圳의 시범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중국내 소매금융시장의 경쟁도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全善俊】